

보도시점 2026. 7. 7.(화) 11:00  
7. 8.(수) 조간 배포 2026. 7. 7.(화) 09:00

## 농식품부, 베트남 거점 삼아 아세안 'K-식자재·신선농산물' 영토 넓힌다

- 베트남 복합형 거점물류센터 고도화, 신선농축산물 맞춤형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 기존 B2C 중심에서 대형 외식·식자재(B2B) 시장으로 수출 패러다임 다변화 추진
- 베트남 최대 유통망 'K-MARKET' 인프라 연계, 캄보디아 등 동아시아 진출 전략 가시화
- '2026 아세안 K-푸드 페어' 성료... B2B 수출상담회 및 차세대 미래 품목 발굴 성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026 아세안 K-푸드 페어'를 계기로, 현지 생산·물류 기반부터 대형 유통망 및 외식 프랜차이즈에 이르는 전방위 공급망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아세안 시장 외연 확대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K-푸드 수출 4위 시장이자 우리 농식품 외연 확장의 핵심 전략 요충지이다. 특히, 한류 확산과 함께 현지 소비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어, 물류 효율화와 다각적인 유통망 확보가 향후 아세안 전역의 시장 지배력을 결정할 핵심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먼저 6월 하노이에 구축된 '복합형 거점물류센터'의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에 고도화된 거점물류센터는 단순 상온 보관을 넘어, 품질 유지가 최우선인 신선농축산물 특성에 맞춰 급속 냉장·냉동 시스템 및 고효율 콜드체인(Cold-Chain) 패키지를 완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수출 기업들이 겪었던 현지 수입·물류비 부담과 신선도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V-Express 사업을 통한 시범수출 및 전방위 마케팅 통합 지원, ▲DC+ (Marketing)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공동 물류·홍보를 입체적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한국산 딸기, 포도, 배 등 고부가가치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축산물까지 안전하게 현지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동남아 특유의 고온다습한 기후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출장 기간 중 베트남 현지 주요 유통 바이어 및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대형 한식당 대표들과 연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산 식자재의 B2B 시장 진출 가능성을 구체화했다. 현지 바이어들은 베트남 내 즉석조리식품(RTC/RTE), 간편식, 한국식 소스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떡볶이 등 K-스트리트푸드 기반 식자재에 대한 현지 외식업계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그동안의 K-푸드 수출 전략이 대형마트 판매 등 B2C 시장에 편중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베트남 내 외식·급식 인프라의 폭발적 성장에 발맞추어 ‘B2B 소스류 및 맞춤형 대용량 식자재’ 시장을 겨냥한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베트남 전역에서 15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K-푸드 유통을 견인하고 있는 최전선 파트너인 ‘K-MARKET’과의 전략적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면담에서는 K-MARKET이 보유한 베트남 내 촘촘한 물류·유통 인프라를 지렛대 삼아, 베트남 시장 고도화는 물론 인근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아시아 신흥 시장으로 K-푸드를 동반 확장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 연계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국내 우수 수출기업과 K-MARKET의 거점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고, 물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아세안 전역에 한국 농식품 공급망을 고도화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같은 기간에 개최된 ‘2026 아세안 K-푸드 페어’ B2B 수출상담회에는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45개사와 아세안 전역에서 초청된 유력 바이어 107개사가 참여하여 총 46건, 21백만불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였다.

아울러, B2C 소비자 체험행사에서는 현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할랄식품, K-스트리트 푸드, 신선농산물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확인하였다. 특히, ‘글로벌 NEXT K-푸드 존’과 ‘푸드테크 존’에서는 한국형 한강라면 체험 등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차세대 유통 유망 품목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베트남은 아세안 시장 진출의 핵심 전략요충지인 동시에 신선농산물과 K-식자재 수출 확대의 중요한 거점”이라며, “이번에 확인한 현지 B2B 식자재 수요와 거점물류센터 인프라, 그리고 K-MARKET 등 거대 유통망과의 전략적 협력을 발판 삼아 베트남을 넘어 캄보디아 등 아세안 전역으로 우리 K-푸드 영토를 과감히 확장하고 물류 인프라 효율화 지원을 더욱 촘촘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강효주 (044-201-2171)
		담당자	사무관	김태규 (044-201-2179)

